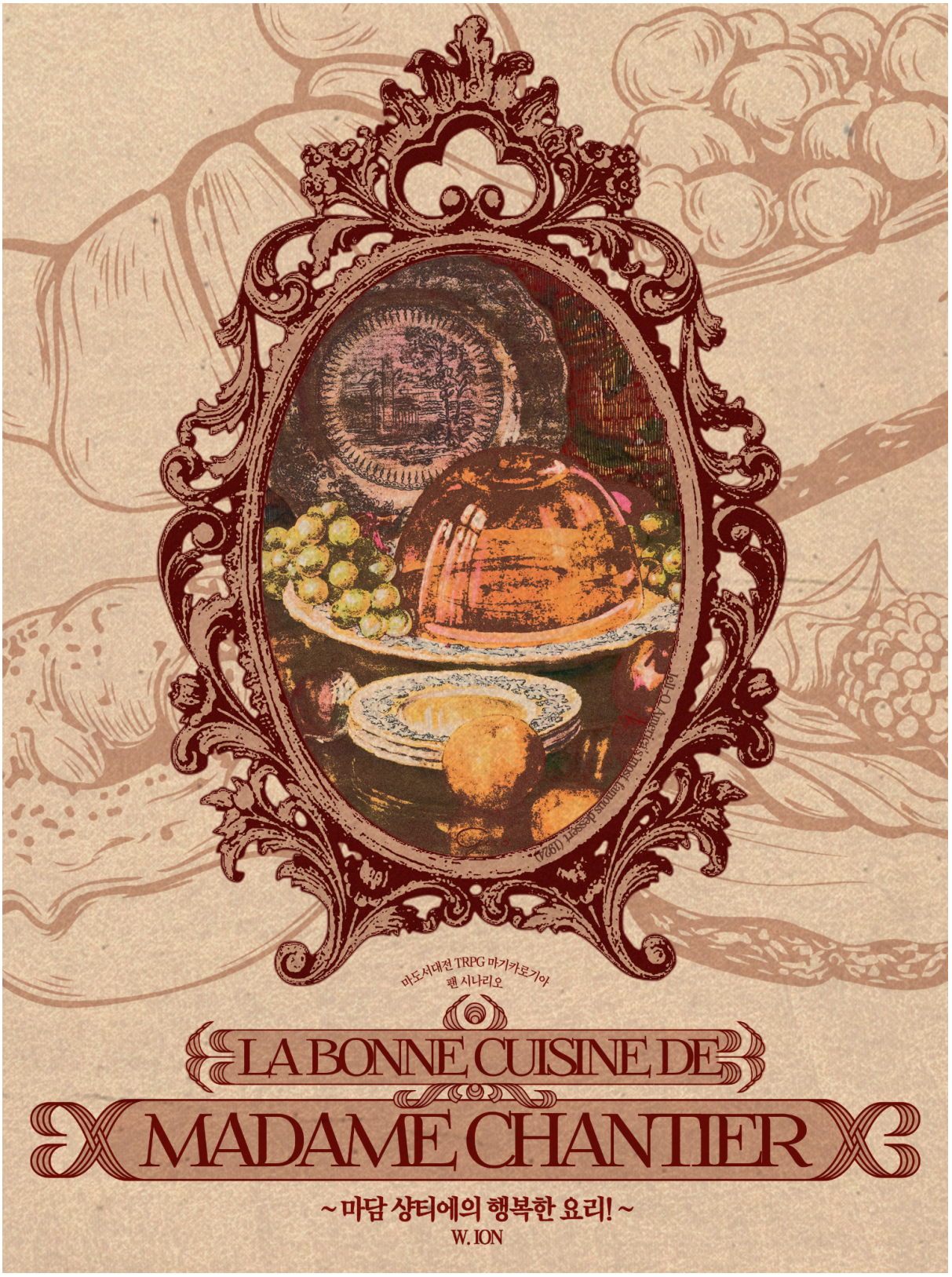

세션카드는 무지개부엉이(@Rainbowl_D)님의 커미션입니다.

시작하며

추천계제: 초기 3계제
인원: 1명
리미트: 5사이클
사용하는 룰북: 대형판 룰북

- **초기 3계제 마법사 PC**를 기준으로 쓰여졌지만 일반적인 세션 구성과 다소 다르기 때문에 아직 **마기로기에 익숙하지 않은 플레이어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 요리하는 시나리오지만 **요리를 못하는/처음해보는 PC**가 더 적합합니다. 또는 요리 도중에 연구할 법한 PC 또한 괜찮습니다.
- 시나리오 내 개변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허락은 따로 구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개요

'마법사를 위한 요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몰랐다면 지금부터 128년 경력의 마법사 요리 연구자, 마담 샹티에의 섬세하고 다정한 인도 하에 차근차근 알아나가면 되겠습니다.'

당신의 눈이 요리책의 서문을 부지런히 훑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손에 들린 이 책은 얼마 전에 구매한 요리책 '마담 샹티에의 행복한 요리!' 입니다.

사건의 진상

'마담 샹티에의 행복한 요리!'는 엄밀히 말하자면 악한 마음이나 인계의 현상에서 발생한 금서는 아닙니다. 정확히는 4계제 서공 아방궁의 마법사 '셀린느 샹티에'의 저작물인 마법서적이지요. 마법사를 위한 요리에 대해 담고있는 이 책은 인계의 요리와 마법사의 약제 제조 중간에 있는 마법사 실용 서적에 속합니다.

마담 샹티에의 요리 레시피는 기발한 한편, 요리 제조에 실패 시 리스크는 기상천외합니다. 요리가 마력을 얻어 생물처럼 뛰어다니거나 폭주하거나 날아가버린다거나... 담아낸 마력을 제대로 제어해내지

못하면 미완성 마법생물이 되어 폭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원탁은 '마담 샹티에의 행복한 요리!' 서적을 출간 금지 목록에 올리고 시중에 풀린 책 또한 수거하거나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중에 풀린 서적이 일괄적으로 회수되어 종적을 감추기는 어려운 법. 그러한 연유로 이 책이 PC의 수중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겠지만요.

특수 룰: 행복한 요리!

이 시나리오에서는 PC가 요리를 합니다. 사전에 PC가 누군가에게 만들어주고 싶은 요리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해당 요리에 맞는 조리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이를 핸드아웃에 맞게 손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스템적으로는 '쿠킹 포인트'로 요리의 맛을 좌우합니다. 1쿠킹포인트 당 1d10의 다이스를 굴리며 만점은 100점입니다. 쿠킹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PC는 각 사이클마다 조리과정에 맞는 각인 판정을 합니다. 이에 성공할 시 1쿠킹포인트를 얻습니다.
2. PC는 각 사이클마다 조리과정에 맞는 롤플레이를 합니다. 마스터가 보기에 노력했다면 1쿠킹포인트를 얻습니다.

이렇게 해서 5사이클동안 얻을 수 있는 최대 쿠킹포인트는 10점입니다. 여기에 클라이맥스에서 마법생물화 된 요리를 잘 제어해냈다면 쿠킹포인트와 별도의 20점을 얻습니다.

즉, 클라이맥스에서 무사히 요리를 처리했다면 요리점수는 10d10+20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요리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10d10으로 요리의 맛을 정할 수는 있지만 맛볼 수 있는 상태는 아닐겁니다.

무대

요리를 할 수 있는 공간. 대체로 자택의 주방. 학원의 학생이라면 학원 내 조리실습실. 조리도구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고 조리대는 깨끗합니다. 이제 난장판이 될 예정이지요.

도입 페이즈

당신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 요리책을 입수했습니다. 학원 수업 도중 압수한 책 목록에 있었을지도 모르고, 아방궁 헌책방 거리의 낡은 가판대에 있었을지도 모르고, 후미진 도서관 구석에 있었을지도 모를 이 책을요.

오늘은 이 책과 함께 요리를 하는 날! 야심차게 요리책의 첫 장을 펼치면...

'마법사를 위한 요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몰랐다면 지금부터 128년 경력의 마법사 요리 연구자, 마담 샹티에의 섬세하고 다정한 인도 하에 차근차근 알아나가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서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뢰가 가는 것도 같고요. 자, 오늘의 요리는 무엇인가요, 요리사님?

핸드아웃 〈레시피 확인〉를 공개합니다.

메인 페이즈

'요리를 해봅시다!' 장면표

[1] 오늘은 요리하기 딱 좋은 날! 마침 주방에 비타민 드링크가 있다. 가볍게 마시고 할까?
[2] 요리를 해주고 싶은 사람의 얼굴이 뭉게뭉게 떠오른다. 맛있는 걸 먹으면 기뻐하겠지? 힘내자!
[3] 직감이 온다. 이건 무언가 잘못되었다. 잘 하면 수습할 수 있을 거 같은데...
[4] 무언가를 빼먹었다. 잠시만요! 금방 챙겨올게요!
[5] 뭔가 놓치고 있는 기분인데... 하나하나 되짚어본다. 무엇이 잘못되었지?
[6] 갑자기 퍼뜩 생각났다. 이걸 추가하면 분명 더 맛있을 거 같은데...

마스터씬1: 말하는 요리책!

조건: 〈레시피 확인〉 핸드아웃을 조사한다.

등장: 전원

책을 들춰보던 당신의 마력에 반응한 것인지 책장이 파라락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라, 뭐지? 이 마도서같은 연출... 의아해하는 와중에 요리책에서 펑! 하는 요란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흰 연기에 콜록거리며 앞을 보면... 엥?

"당신이 바로 이 책을 구매해준 마법사군요!"

"반가워요, 저는 마담 샹티에..."

"의 분신! 인건비 상으로 제가 진짜 책에 갈려 들어갈 순 없었거든요. 오호홋."

"분신이지만 성능은 걱정하지 마세요! 마담 샹티에의 요리지식은 다-아 제 안에 있으니까요."

PC가 금서인지 의심한다면 > "어멋, 어머멋, 이런 무례한 마법사가 다!"

"아방궁 거리에 가서 물어보라구요, 128년 전통 마법사 요리의 전문가! 이 마담 샹티에의 이름을 모르다니! 당신 인생을 헛살고 있었는데 방금 막 구원 받은 줄 아세요!"

이후 PC의 요리 여정에 마담 샹티에의 지도(겸 잔소리)가 함께합니다.

클라이맥스

요리를 끝낸 후 마담 샹티에와 인사를 하고, 요리를 먹어줄 사람만 기다리는 일만 남은 지금... 당신의 기분은 최고조! 첫 요리지만 제법 잘해낸 것 같아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잠깐의 뿌듯함을 즐기고 있을 때...

부글부글

당신이 예쁘게 세팅해둔 요리가 갑자기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어, 어라? 무언가 잘못되었나? 급하게 요리책을 보지만 마담 샹티에는 잠잠하기만 합니다. 다시 고개를 돌려 요리를 보면... 익숙한 기류가 느껴집니다. 요리에서 폭발하듯이 흘러나오는 이것은 바로 당신이 요리를 하면서 열심히 집어넣었던 마력!

그것이 요리에 제대로 담기지 않아 지금 터져 나올듯이 부글거리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둔다면... 이곳이 난장판이 되어버릴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그러기 전에 막는 수 밖에요!

엔딩

> 요리에게 패배할 경우

당신이 철푸덕 엎어진 사이, 요리는 발산하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한 듯 식탁에서 둥실 떠오릅니다. 식탁 위에서 빙글빙글 돌던 요리는 빠른 속도로 허공을 가르기 시작하더니, 유리창을 깨고 날아가버립니다. 안돼, 내 요리!

이후 요리는 문호의 마법사 손에 처분되고, PC는 경위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요리에게 승리할 경우

어디선가 마담 샹티에의 경쾌한 브라보 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습니다. 부글부글 끓던 요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맛있는 요리처럼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먹여도 되는걸까? 고민하고 있을 무렵, 띵동. 초인종 소리가 들립니다. 그 사람이 왔나봐요! Bon Appétit!

실제로 먹어도 문제가 없는 요리인가 > 마담 샹티에의 방식은 실패했을 경우의 패널티가 클 뿐 완성된 요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요리는 마법사에게 좋은 재료를 써서 만들었으니 마력 회복의 효과가 있습니다.

맛은? > 그것은 점수에 따라 다릅니다. 성공적으로 회수했을 경우 (쿠킹포인트)d10+20 으로 요리의 맛을 확인해봅시다.

대법전의 출간 금지 명령을 알 법한 마법사거나 문호의 마법사라면 겸사겸사 요리책을 회수해주어도 괜찮습니다.

핸드아웃

핸드아웃1 〈레시피 확인〉

화려한 색감의 요리책.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다고 한다. 게다가 '마법사를 위한' 요리라니! 딱 PC가 찾던 책이다.

신나게 서론을 읽고 뒷장을 넘겨보니 ...왜 아무것도 없지? 파본인가?

비밀: 마법사는 마법을 써야지! 요리책이 말한다.

마스터씬 **〈말하는 요리책!〉**이 발생한다.

핸드아웃 **〈재료 준비〉**를 공개한다.

핸드아웃2 〈재료 준비〉

하고싶은 요리를 빈 페이지에 적어넣었더니 필요한 요리재료를 마담 샹티에가 하나하나 불러준다. 그러나 마법사를 위한 요리에는 조금 더 특별한 재료가 필요하다는데... 아덴의 숲에서 자란 산딸기요?

비밀: 특별한 요리에는 특별한 재료를! 어렵게 구해온 특별 재료도 마저 손질하자!

(GM정보: 요리에 따라 재료가 다를 것입니다. 그땐 이 수식어구를 활용하세요. '[[1d1000]]년 된 뇌명정 특제 ○○', '아방궁 뒷골목 향신료 가게에서 구할 수 있는 ○○', 크레도 탑 근처에서 자라는 ○○○'...)

핸드아웃 **〈손질〉**을 공개한다.

핸드아웃3 〈손질〉

마법사는 요리를 할 때도 마법을 써야죠. 왜냐고요? 우리는 마법사니까요! 마담 샹티에가 특이한 손질 방식을 제안한다. 그러니까... 식칼을 동시에 3개를 띄워놓고 동시에 썰으라고요?

비밀: 휴! 어떻게든 해냈다! 마검도 다루는 대법전의 마법사는 마검도 식칼도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다.

핸드아웃 **〈조리〉**를 공개한다.

핸드아웃4 〈조리〉

요리 초보자에게는 가장 어려운 단계. 비장하게 불 앞에 서면 마담 샹티에 또한 진중하게 책장을 팔랑인다. 그런데... 가장 뜨거울 때 마소를 넣어야 한다고요? 요리에요? 이거 안녹는 거 같은데...

비밀: 데굴, 데구륵... 조리 도구 위 구슬처럼 구르던 마소가 정말로 요리에 녹아든 것인지 어느 순간부터 이질적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GM참고: 마소 아무거나 1개가 필요합니다. 주구 영창 마소를 활용해주세요.)

핸드아웃 **〈플레이팅〉**을 공개한다.

핸드아웃5 〈플레이팅〉

요리의 꽃! 당신의 미감을 마음껏 드러내보세요. 아차, 이 요리를 먹어줄 사람을 위해 행복의 마법을 거는 것도 잊지 말고요!

비밀: 행복의 마법을 걸자 요리에서 펑! 하는 소리가 난다. 외관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이걸로 진짜 완성이다!

애너미 데이터

[Rank 4] 갓 만든 크림스튜

공격력 3 방어력 3 근원력 3 마력 8

영역 힘

특기 《혼돈》, 《물》, 《불》, 《마음》

장서: 【마검 소환】 소환 《혼돈》, 【검무】 소환 《혼돈》, 【불꽃】 주문 《불》, 【추신】 주문 《마음》